SK그룹, 연구개발 시스템 “혁신”

성장동력 발굴 위해 R&DB+E 도입 ... 엔지니어링 파트 검증 필수

SK그룹이 양축인 에너지와 정보통신 외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제3의 퀀텀 점프(대약진)를 위해 신 개념 연구개발(R&D)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SK에 따르면, 에너지와 정보통신으로 구성된 기존의 사업축만 가지고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제3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R&D 초기부터 기술 파트를 참여시키도록 하는 R&BD+E (Research&Business Development+Engineering) 체계를 최근 도입했다.

기존에 유지해오던 사업화를 염두에 둔 연구개발인 R&BD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연구개발 초기부터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엔지니어링(공학기술) 파트의 적극적인 참여와 충분한 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방식이다.

SK그룹은 그동안 <연구를 위한 연구>를 벗어나 초기부터 사업화를 최종 목표로 두고 연구개발에 나선다는 R&BD(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체계를 활용해왔다.

그러나 2011년 초부터는 최태원 회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R&BD에 엔지니어링 개념을 추가한 R&BD+E 체계를 본격 도입했다.

사업화하더라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엔지니어링 파트의 충분한 검증을 거치고, 연구개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술파트 실무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최태원 회장은 최근 “M&A나 투자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경쟁기업보다 더 큰 수확을 기대하려면 남들보다 앞선 기술이 있어야 한다”며 “기술과 R&D는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인 만큼 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글로벌 프로덕트를 생산해내는 기술지향적 회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SK의 주력 계열사들은 최근 연구개발 조직과 인력을 재배치했다.

SK이노베이션은 2011년 초부터 300명의 엔지니어링 본부를 SK글로벌테크놀로지(옛 SK기술원) 산하로 통합했다.

연구개발하고 있는 촉매·공정기술, 석유·아스팔트 고분자·석유화학·소재 기술의 사업화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또 SK식 연구개발을 통해 리튬이온전지용 분리막(LiBS: Lithium-ion Battery Separator) 기술과 고유의 전극기술 등 소재기술을 개발해 자동차 배터리 시장에 진출했다. 사업화를 염두에 둔 연구개발의 대표적인 성과로 최근 서산일반산업단지에서 배터리 공장을 착공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플라스틱제품을 생산하는 신기술인 그린폴(Green-Pol) 기술도 개발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회수한 후 촉매 기술을 이용해 플라스틱의 원재료인 폴리머로 전환해 실생활에 유용한 플라스틱제품을 생산하는 획기적인 친환경 신소재 기술이다.

SK 관계자는 “SK그룹이 고비마다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SK만의 독자적인 연구개발에 힘입은 바 크다”며 “2011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R&BD+E 체계 역시 제3의 도약을 달성하기 위한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11/06/10>